

# 學生에 의한 敎授講義評價制

李 鍾 昇

(忠南大 敎育學科)

교수들은 그동안 도전이나 견제가 거의 없던 안이한 대학사회의 유유자적에서 깨어나 競爭과 批判이 상존하는 긴장된 교수생활을 감내할 새로운 각오와 분발의 의지를 보일 때가 도래하였다. 잘못된 평가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익한 평가는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評價는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 제한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合理的 方法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代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1. 問題의 提起

지난 7월초 경주 힐튼호텔에서 전국의 총·학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발전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가 바로 '敎授講義評價制'였다. 교수장의평가제에 대하여 총장들이 장시간에 걸쳐 갑론을박하면서 찬·반의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필자는 현장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이 때 성급한 신문기자들은 대학총장회의에서 교수장의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고, 그 다음날 총장회의에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나가게 된 경위를 따지고 다사오랫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도달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대학현실에서 교수장의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었다.

교수장의평가제에 대한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보도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대학 내외에서 분분하게 이루어졌으며, 교수사회에서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필적 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 식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처럼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수장의평가제에 대한 贊反의 論理는 각각 그 나름으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수장의평가제의 실시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전적으로 교수의 질에 달려 있는 바, 강의 개선을 도모하고 교수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의 주요 책무는 교육과 연구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교수의 업적평가는 주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만으로 시행되어 왔을 뿐, 교육업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교수의 책무 중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강의업무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고 연구업적만 따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업적을 쌓기에 급급한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스승과 제자'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師弟倫理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평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교수의 강의를 평가할 능력도 경험도 부족하다. 또한 학생에 의한 강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교수들은 소신있게 강의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는 정말로 실력있고 강직한 교수보다는 그때그때 인기 위주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잘 영합하는 교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자칫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대학현실에서 교수강의평가제를 실시하면 소위 운동권 학생집단이나 일부 불순세력이 이 제도를 고의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는 시기상조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대학강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평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해당 교수 자신이 하는 자체평가, 동료교수에 의한 평가, 학생들에 의한 평가, 그리고 대학행정가나 외부 관찰자에 의한 평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이므로, 본고에서는 講義評價(여기서는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를 이렇게 약칭함)의 문제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강의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그리고 유용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해 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講義評價의 妥當性과 信賴性

교수들 중에는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강의의 질과 직접 관련없는 교수의 개인적 스타일에 영향받아 평가하거나 자신의 성적여하 등에 따라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는 그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학생들은 훌륭하고 충실한 강의와 그렇지 못한 강의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가? 그들의 강의평가는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지 못한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이 분야의 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문제와 직결된 몇 가지 연구결과만 예시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강의평가의 信賴度에 관한 연구를 알아본다. 강의평가의 신뢰도는 대개 평가 결과의 내적 일치성과 안정성을 통하여 확인한다. 여기서 內的 一致性이란 동일한 학생집단이 여러 가지 형식의 평정도구를 이용하여 특정 강의를 평가했을 때 각 평정도구에서 얻은 결과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安定性은 동일한 교수의 강의를 시기를 달리하여 두 번 이상 평가한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로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는 내적 일치성과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stin 등, 1971; Kulik과 McKeachie, 1975). 최근의 한 조사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lbanese(1991)는 강의를 잘하는 강사와 그렇지 못한 강사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보통 학생들과 사전에 훈련받은 관찰자 간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평정한 결과와 훈련받은 관찰자가 평가한 것 사이에 매우 높은 일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훈련받은 관찰자가 가장 훌륭하다고 평정한 강사를 학생들도 역시 가장 훌륭한 강사로 평정하였으며, 가장 잘 가르치자

못하는 강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훈련받은 관찰자와 학생들 간에 완전일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3년간의 기간을 두고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는 안정성이 유지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아 학생들에 의한 교수강의평가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에 강의평가의 妥當性에 관한 몇몇 연구결과를 고찰하여 보자. 학생변인과 강의평가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종합검토한 Kulik과 McKeachie(1975)는 이들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학생변인 중 성별·학년·전공 등의 요인은 강의평가에 별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교수나 교과목에 대한 일반적 성향과 태도는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는 교수나 교과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싫어하는 교수나 과목은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 강의평가는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Naftulin 등(1973)은 강의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강의외적 요인이 강의평가를 할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들은 행정가·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한 성인집단에게 '저명한 폭스 박사'라고 위장시킨 전문적인 배우를 초빙교수로 소개하고, 그 배우교수로 하여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새로운 분야의 내용(실제로는 무의미한 내용)을 유창한 말솜씨로 매우 흥미진진하고 권위있게 특강하는 실험상황을 꾸몄다. 강의가 끝난 다음, 수강생들에게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시킨 결과 놀랍게도 수강생들은 알맹이도 없는 그 강의를 아주 훌륭하고 유익한 것이었다고 평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이 대학생이 아닌 일반성인이라는 점과 비교집단이 없었다는 점 등의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실험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현상을 반복검증하는 연구들이 뒤를 따랐다.

예를 들면 Ware와 Williams(1975, 1980)는 강사의 '表現力'(유창한 말솜씨의 정도를 의미

함)과 '內容充實度'(강의내용의 알찬 정도를 의미함)를 적절히 변화시켜 상이한 4종류의 비디오 강의자료를 만들어서 실험하였다. 즉, 직업 배우를 강사로 등장시켜서 '표현력 좋고, 알찬 내용', '표현력은 좋으나, 빈약한 내용', '표현력은 나쁘나, 알찬 내용', '표현력도 나쁘고, 내용도 빈약한' 4가지 비디오 강의자료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비디오 강의를 수강한 대학생들에게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 '표현력'과 '강의내용'에서 모두 주요효과가 나타났고 또 이들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학생들은 표현력 좋게 강의한 것을 그렇지 못한 강의에 비하여 월등하게 더 높이 평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내용이 충실한 강의를 빈약한 강의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표현력이 좋지 않은 강의에서는 강의내용의 충실도 여하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표현력이 좋은 강의에서는 강의 내용의 충실도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은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에서 강의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보다는 강사의 표현력과 스타일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는 현상을 '폭스 박사 효과'(Dr. Fox effect) 또는 '교육적 유혹'(educational seduction)이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하는 강의평가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강의평가를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批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령 Abrami 등(1982)은 '교육적 유혹'에 관하여 실험한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 분야의 연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교수의 표현력, 바꾸어 말하면 강의에서의 말솜씨가 강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이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의내용의 충실여부가 학생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나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연구가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상황

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으며,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어느 정도나 포괄하고 있는지를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강의평가에 관련된 변인 중 극히 일부 요인만을 골라서 실험하였기 때문에 관련변인의 포괄성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고, 또한 20~30 분 정도의 비디오 자료에 의한 매우 인위적이고 제한적인 강의는 한 학기 동안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실제 강의상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학강의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강의평가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그 결과를 대학 강의 전반에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한편, Cohen(1981)은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는 강의평가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강의평가와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47의 상관계수를 얻었고, 강사의 강의기술이나 내용구성 등을 통한 전반적인 강사평가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43의 상관계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는 교수효과성을 나타내는 타당한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Dunkin(1986)도 많은 선행연구를 개관한 논문에서 학생들은 수업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수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가 상당히 유의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요약하면 강의평가의 신뢰도는 여러 연구에서 한결같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정도의 信賴性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강의평가의 妥當性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서로 불일치하는 점이 있고, 연구자들의 주장도 상호 엇갈리는 경향이 있는 실정이므로 아직 단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느낌이다. 그러나 필자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실시해 본 강의평가의 결과와 주관적인 평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가 부분적으로 강의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훌륭하고 충실한 강의와 그렇지 못한 강의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3. 教授改善을 위한 講義評價의 有用性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자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교수의 강의능력 향상과 교수방법 개선이라는 준거에 비추어 본 강의평가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의평가의 결과를 교수들에게 送還(feedback)할 경우 이것이 강의의 질적 향상 및 개선에 이바지하려면, 교수의 강의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화가 교수효율성을 나타내는 준거에 비추어 타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 즉 강의평가가 교수행동에 변화를 초래하는가와 이러한 변화가 교수효율성의 준거와 일치하는가 등의 문제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Rotem과 Glasman(1979)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講義評價의 送還效果를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의 결론은 한마디로 대학교수의 강의수준을 향상시키고 강의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강의평가의 송환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자들은 교수개선에 있어서 강의평가의 송환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대신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의평가의 송환이 대학 강의 개선에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 돌리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가 교수들에게 민을 만한 情報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교수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선입견, 즉 학생들은 강의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공정하고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없으며, 또한 학생들은 강의의 질과는 무관한 요인

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생각을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교수들은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를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여러 연구를 통하여 강의평가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만, 교수들의 선입견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교수에게 제공되는 평가결과가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강의평가는 일반적으로 數値化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처럼 수치로 제시되는 평가결과는 너무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강의의 어떤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수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으려면 강의평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야 하며, 변화시키기 어려운 성격적 특성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큰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셋째, 교수집단의 특성이 또한 강의평가의 송환효과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입교수를 채용할 때 강의능력보다는 연구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지고, 교수로 임용된 다음 승진이나 제임용을 결정할 때에도 대개 연구업적에 큰 비중을 두고 敎育業績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는 비교적 덜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은 강의개선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강의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Cohen(1991), Levinson-Rose와 Menges(1981) 등은 강의평가가 대학에서의 교수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강의평가의 송환은 비록 그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의의있게 교수개선에 공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강의가 진행되는 학기 도중에 일종의 형성평가 성격을 띤 강의평가를 받은 교수들은 자신의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학생들이 지적한 사항을 가급적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 학기말에 다시 실시하는 강의평

가에서는 보다 나은 평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들에게 강의평가의 결과를 단순히 통보해 주는 것보다는 강의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專門的 諮問을 곁들이면서 평가결과를 제공할 경우에 그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의 유용성은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강의평가에 대한 교수들의 고정관념이나 의식이 바뀌고 강의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한다면,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강의평가를 실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빈번한 휴강이나 성의없이 강의에 임하는 일부 나태한 교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4. 하나의 接近試案

누구나 자신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評價'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평가이건 그다지 썩 마음내키는 일은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정치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가를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마련이다. 빛나간 평가는 시정되어야 하고, 잘못된 평가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익한 평가는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평가는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 제한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는 그 신뢰성·타당성·유용성에 있어서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을 적절히 조정만 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행해도 좋을 만큼 충분한 실증자료가 누적되었다고 본다. 교수강의평가의 문제

가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다. 10년 전 이성진과 김호권(1982)이 수행한 연구에서 이미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대학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그동안 연구의 면으로나 실천의 면으로 그 이상 진전되지 못한 답보상태이다. 이제까지 실증적 연구는 한 건도 찾을 수 없고, 근래에 이 문제를 취급한 몇 편의 논문(이성호, 1991; 이연섭, 1989; 이해성, 1992)에서도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수준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교수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제는 논의의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의 대학문화에 알맞은 방법으로 강의평가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교수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은 그동안 도전이나 견제가 거의 없던 안이한 대학사회의 유유자적에서 깨어나 競爭과 批判이 상존하는 긴장된 교수생활을 감내할 새로운 각오와 분발의 의지를 보일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학사회에서 교수들의 業績評價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그 하나의 좋은 예를 서울공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서울공대에서는 앞으로 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심사를 할 때 반드시 국제수준의 연구업적을 제출토록 하는 등 교수임용 및 승진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교수평가를 강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이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강의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게 될 시기가 과히 멀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敎授의 責務性을 강조하는 대학 내외의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전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은 전임강사로 대학에 발을 들여 놓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있고 잘 가르치느냐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승진심사도 있고 재임용제도라는 것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매우 형식적인 실정이다. 교수재임용제는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솔직히 말하여 일부 교수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제단과의 마찰로 인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강의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연구업적이 없어서 탈락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교수들 중에는 별다른 자극을 받음없이 안이하게 교수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대학내외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수들은 외국의 대학교수들에 비하여 과보호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옛날에는 교수자원이 부족하여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는 사정이 크게 변화되었다. 요즘 교수채용의 공고가 나가면 서울이나 지방소재 대학 또는 소위 일류대학이나 그렇지 못한 대학을 가릴 것 없이 교수자격을 충분히 갖춘 지망생들이 대거 몰려들어 그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옛날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교수의 책무를 대학의 사명과 관련지어 교육·연구·봉사로 규정하는데, 이 중에서 敎育의 責務는 연구업무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흔히 우수한 연구자는 곧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능력과 교수효율성 간에는 별로 상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생각은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Centra, 1981).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는 그 방법과 절차가 어떠하며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교수강의평가제가 우리나라 대학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준비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적절히 여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대학에 이식하려 든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시험적인 첫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基本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① 초기단계에서는 강의평가의 실시여부를 전

적으로 개별교수의 自律에 맡겨야 한다. 만약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를 교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교육부당국이나 대학당국이 강요하는 방식이 된다면 엄청난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의 공식화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초기에는 희망하는 교수들에 한하여 자발적인 실시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강의내용을 재조직하거나 강의방법을 수정하는 등 敎授改善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강의평가의 결과를 교수의 승진이나 재임용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인사행정 자료로 이용한다거나 교수들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선은 개별교수가 단지 자신의 강의개선을 위한 정보수집의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③ 강의평가의 실시대상을 大學生이나 또는 학부의 上級學生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부학생들은 아직 지적으로나 경험상 미숙하고 강의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학부과정의 저학년 학생들에 의한 교수강의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④ 대학당국은 강의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수들에게 가급적 行·財政的 支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에서는 강의개선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보조한다거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강의평가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강의평가제를 시행하기에 알맞도록 현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⑤ 교수강의평가제를 비롯하여 수업개선책을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常設 研究委員會를 각 대학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회에서는 강의평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수들에게 강의평가나 수업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 그리고 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을 담당토록 한다. ■

#### 〈參考文獻〉

- 이성진·김호권(1982), 『大學授業 評價方案에 관한 研究』,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성호(1991), “敎授 業績評價의 本質과 方法”, 『대학 교육』, 53호, pp. 39~52.
- 이연섭(1989), 『敎授의 授業評價』, 교수학살자료 89-8-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해성(1992), “敎授 講義評價制의 새로운 모색”, 『대학 교육』, 56호, pp. 72~82.
- Abrami, P.C., Leventhal, L. & Perry, R.P.(1982), Educational seduc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 pp. 446~464.
- Albanese, M.A.(1991), The validity of lecturer ratings by students and trained observers, *Academic Medicine*, 66(1), pp. 26~28.
- Centra, J.A.(1981), *Research Productivity and Teaching Effectiveness*,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Cohen, P.A.(1981), Student ratings of instruction and student achievement: A meta-analysis of multisection validity stud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1, pp. 281~309.
- Cohen, P.A.(1991), Effectiveness of student ratings feedback and consultation for improving instruction in dental school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55(2), pp. 145~150.
- Costin, F., Greenough, W.T. & Menges, R.J.(1971), Student ratings of college teaching: Reliability, validity, and usefulnes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1, pp. 511~535.
- Dunkin, M.J.(1986), Research 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In M.C.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in Teaching* (3rd ed.), New York: Macmillan, pp. 754~777.
- Kulik, J.A. & McKeachie, W.J.(1975), The evaluation of teachers in higher education, In F.N. Kerlinger(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3, Itasca, Ill.: F.E. Peacock, pp. 210~240.
- Leventhal, L.(1979), The Dr. Fox effect: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Instructional Evaluation*, 4, pp. 1~6.
- Levinson-Rose, J. & Menges, R.J.(1981), Improving college teaching: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1, pp. 403~

434.

Naftulin, D.H., Ware, J.E. & Donnelly, F.A.(1973), The Doctor Fox lecture: A paradigm of education seductio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8, pp.630~635.

Rotem, A. & Glasman, N.S.(1979), On the effectiveness of students' evaluative feedback to university instructo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3), pp.497~511.

Ware, J.E. & Williams, R.G.(1975), The Dr. Fox effect: A study of lecture effectiveness and ratings of instructio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0, pp.149~156.

Ware, J.E. & Williams, R.G.(1980), A reanalysis of the Doctor Fox experiments, *Instructional Evaluation*, 4, pp.15~18.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62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教授 및 社會奉仕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敎育과정이나 敎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方案에 관한 논의,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本誌에 게재된 글에 대한 反論 원고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敎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45매 또는 55매(②는 20매 또는 25매)

3. 期 限—1993년 1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우: 150-742)

(TEL 783-3891, 780-7942, FAX 780-8311)

6. 附 記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